



김민석 국무총리, 신임 부처 청년보좌역들과 '삼청동 공관 오픈하우스' 간담회

- 신임 청년보좌역들과 첫 만남...청년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 제안 청취
- 청년보좌역들이 각 부처에서 청년들을 위한 좋은 제안과 건의를 통해 청년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

□ 김민석 국무총리는 2026년 4월 18일(토),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(삼청당)에서 14개 부처*의 신임 청년보좌역**들을 초청해 「삼청동 오픈하우스」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교육부, 외교부, 통일부, 법무부, 국방부, 행안부, 보훈부, 문체부, 기후부, 노동부, 국토부, 중기부, 방미통위, 개인정보위
(25개 장관급 부처를 대상으로 채용 중이며, 현재 14개 부처에서 채용 완료)

** 정부정책 수립·시행 과정에서 청년의 인식과 요구를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6급상당(전문임기제 다급) 공무원(1년 임기, 1회 연장가능)

○ 이번 간담회는 대국민 소통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「삼청동 공관 오픈하우스*」의 일환으로서, 이번에 새로 채용된 각 부처 청년보좌역들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되었다.

* 국무총리 공관을 국민과 함께 나누기 위해 토요일 개방(5월부터 국민신청·관람 예정)

□ 청년보좌역들은 국무총리 공관을 함께 둘러본 후, 삼청당에 모여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간담회를 갖고, 청년정책의 체감도 제고와 청년참여 강화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.

□ 김총리는 신임 부처 청년보좌역들에게 “각 부처의 정책 수립과정에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여 반영하고, 청년들의 참신한 시각을 반영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들을 만들어 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- 또한, “청년보좌역은 부처별로 구성되어 있는 2030청년자문단(20여명)을 이끄는 단장으로서 자문단을 잘 이끌어 주고, 총리실 청년정책조정실을 중심으로 청년보좌역간의 네트워크도 구축해 줄 것”을 강조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	책임자	과 장 유경호 (044-200-1981)
		담당자	사무관 박아름 (044-200-1986)

